



메이저리구에 '류중주범'이 화제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8월 31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전에서 1-1로 맞선 2회 2사 2루서 아시엘 푸이그의 바가지안타 때 뒤뚱거리며 홈까지 역주를 펼친 뒤 상대 포수 닉 헨들리의 태그를 피하는 재치 있는 슬라이딩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ML B.com은 "류현진은 홈에 통통거리며 들어왔다"고 표현했다. 류현진은 이에 앞서 0-1로 뒤진 2회 2사 2루서 타석에 등장해 왼쪽 펜스 하단을 때리는 동점 적시 2루타(시즌 3호)를 때려내기도 했다. LA | AP/시스

# 13승 류현진, PS 3선발 자리 지켜낼까

## 통신원 수첩

놀라스코, 16연속이닝 무실점 상승세 PS 무대 선발 자리 놓고 선의의 경쟁 15승 챙기고 2점대 방어율 유지 관건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낮 최고기온 35도를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5만 1769명의 관중이 운집한 다저스타디움은 올 시즌 20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미 서부 시간으로 오후 7시5분에 경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32도의 고온에 평소보다 훨씬 높은 습도로 LA 답지 않은 최악의 기후 조건 속에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랐다.

92-93-93. 샌디에이고전 파드리스전에서 1회 첫 타자 크리스 테노피어를 상대로 던진 류현진의 직구 구속(마일)이었다. 이어 파드리스에서 가장 뜨겁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월 배너블과 3번 제드 죠코를 상대로 94마일(151km)짜리 직구를 무려 6개나 뿌려댔다.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오랜만에 1회를 삼자범퇴로 마치자 다저스타디움 기자실에는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다. 6일 전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서 3점홈런을 맞는 등 1회에 4점을 내줘 경기를 그르쳤던 류현진이 이날은 전혀 다른 투수로 변했기 때문이다. 경기 후 류현진은 "1회에 약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서 어떻게든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치고 싶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6.1이닝 1실점으로 파드리스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한 류현진은 2연패의 사슬을 끊고 시즌 13승(5패) 고지에 안착했다. 하지만 이날 1승은 그 어느 경기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저스가 그대로 지구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2위 애리조나 디백스와 10경기차 이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막판 난조로 지구 우승을 놓친다 해도 2장으로 확대된 와일드카드 중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LA 다저스 류현진 메이저리그 등판일지

구분	날짜	상대팀	구경(H/A)	등판	결과	이닝	투구	안타	홈런	4사구	삼진	실점(자책)	방어율
	4월	5경기(홈 2게임) 선발			2승1패	31.2	492	30	3	8	34	14(12)	3.41
	5월	6경기(홈 3게임) 선발			4승1패	40.0	625	29	3	14	33	11(11)	2.48
	6월	5경기(홈 4게임) 선발			0승1패	33.1	539	37	3	12	20	10(10)	2.70
17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A)	선발	승	6.2	107	4	0	3	3	2(2)	2.82
18	7월 11일	애리조나	체이스필드(A)	선발	-	5.0	100	7	1	2	3	5(5)	3.09
19	7월 23일	토론토	로저스센터(A)	선발	승	5.1	102	9	0	2	3	4(4)	3.25
20	7월 28일	신시내티	다저스타디움(H)	선발	승	7.0	109	2	1	1	9	1(1)	3.14
21	8월 3일	시카고컵스	리글리필드(A)	선발	승	5.1	101	11	0	0	6	2(2)	3.15
22	8월 9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A)	선발	승	7.0	110	5	0	0	7	1(0)	2.99
23	8월 14일	뉴욕 메츠	다저스타디움(H)	선발	승	7.0	107	5	1	1	3	1(1)	2.91
24	8월 20일	마이애미	말린스파크(A)	선발	패	7.1	112	6	0	2	5	3(3)	2.95
25	8월 25일	보스턴	다저스타디움(H)	선발	패	5.0	89	5	1	0(1)	7	4(4)	3.08
26	8월 31일	샌디에이고	다저스타디움(H)	선발	승	6.1	109	8	0	1	6	1(1)	3.02
		합	계		13승5패	167	2702	158	13	46(1)	139	59(56)	3.02

올 시즌 다저스의 목표는 최소 월드시리즈 진출이다. 왕년의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매직 존슨 구단주는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은 실패작"이라 선언한 바 있다.

한때 해고 위기에 몰렸다가 이제는 최고의 명장 대우를 받고 있는 돈 매링리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아직 계약 연장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나오지 않고 있다. 현 멤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고 해서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논리다. 존슨 구단주의 말대로 최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을 차지해야 매링리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한 달 후부터 펼쳐질 포스트시즌에서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이 어떻게 꾸러질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원투 펀치인 클레이튼 커쇼와 잭 그레인키는 언터처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전까지 3선발은 류현진의 차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리그 놀라스코(11승9패)가 16연속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3선발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5승8패(방어율 3.85)에 그쳤던 놀라스코

가 다저스로 등지를 옮긴 이후에는 10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6승1패(방어율 2.20)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8월에 4승2패(방어율 2.61)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하지만 놀라스코는 5승무패(방어율 1.64), 그레인키 역시 5승무패(방어율 1.23)를 기록했다. 에이스 커쇼는 승운이 따르지 않아 3승2패에 그쳤지만 1.01의 경이적인 월간 방어율을 마크했다.

단기전으로 치러지는 포스트시즌에서 선발로 나선 투수가 1회부터 난조를 보인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저스가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거취가 결정되는 매링리 감독으로서 경기 초반부터 안정된 피칭을 하는 투수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시즌에서도 디비전시리즈까지는 4선발이 필요 없다. 7전4승승제로 치러지는 리그 챔피언십시리즈나 월드시리즈에서도 상황에 따라 3선발만 쓰는 감독이 있고, 4명을 모두 돌리는 감독도 있다. 다시 말해 3선발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시즌 개막 전 메이저리그 루키라는 이유로 한때 선발 요원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기존 선배들을 제치고

### ●류현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기록표 (31일)

	1	2	3	4	5	6	7	8	9	R	H	E
파드리스	0	1	0	0	0	0	0	1	2	11	1	
다저스	0	2	2	0	0	0	5	0	X	9	13	1

승 : 류현진 패 : 에릭 스톨츠

타수	타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 (우) 테노피어	중비	좌안	삼진					
2 (중) 배너블	삼진	중안	일방					
3 (二) 죠코	삼진	삼명	유망					
4 (-) 알론소	중비	그명	중안					
5 (좌) 구스만	좌안	우비	삼진					
6 (三) 포사이드	좌중20	유실	삼진					
7 (포) 헨들리	삼진	그명					좌안	
8 (우) 세데노	중비	4구					중안	
9 (투) 스톨츠	일방	투회						
타 애머스타							중안	

※수비위치 ( )는 선발라인업, ○은 타점, ▲투수=헨들리 (7회 투수 1-2루서 이미리스타 중안 때 2루에서 홈 파다)

당당히 투수 왕국 다저스의 선발 자리를 차지했던 류현진이 이제는 정년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굴러들어 온 돌' 놀라스코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마지막 9월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플레이오프 3선발 자리를 놓고 놀라스코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보면 15승과 2점대 방어율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공산이 크다.



손정원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 다저스, 벌써 포스트시즌 대비? 베테랑 내야수 마이클 영 영입



포스트시즌 진출을 넘어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바라보는 LA 다저스가 플레이오프 엔트리 등록 가능 트레이드 마감시한을 앞두고 베테랑 내야수 마이클 영(37·사진)을 영입했다. 다저스는 1일(한국시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필라델피아 내야수 마이클 영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다저스는 마이너리그 투수 톱 라스무센을 내주기로 했다.

영은 2000년 텍사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된 스타플레이어이다. 2008년에는 골드글러브도 수상했다. 2010~2011년에는 텍사스 소속으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경험했다. 올 시즌 필라델피아로 이적해 타율 0.276, 8홈런, 42타점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2루수, 유격수, 3루수로 활약할 수 있는 전천후 내야수다.

다저스는 1일 샌디에이고전에서 승리하며 리그 두 번째로 80승 고지를 밟았다. 8월에 거둔 23승(6패)은 브루클린에서 LA로 연고지를 이전한 1958년 이후 월간 최다승 기록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마이클 영을 영입하며 포스트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http://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 추신수 3안타...시즌 44번째 멀티히트



추신수(31·신시내티·사진)가 다시 방망이에 불을 붙이고 있다. 추신수는 1일(한국시간) 큐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와의 원정경기에서 4타수 3안타 1볼넷 2득점 1타점으로 팀의 8-3 완승을 이끌었다. 시즌 44번째 멀티히트였고, 시즌 7번째 3안타 경기였다. 4연속경기 안타로 시즌 타율을 0.281로 끌어올렸다. 또한 2득점을 추가해 시즌 90득점으로 개인통산 한 시즌 최다득점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클리블랜드에서 올린 88득점이 개인 한 시즌 최고 기록이었다.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풀러내 결승 득점을 올린 추신수는 2번째 타석에서 좌익수플라이로 물러났다. 이후 3타석에서는 모두 안타를 때려냈다. 우전 안타~중전 안타~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 등 부챗살 타법으로 절정의 타격 감각을 뽐냈다. [최용석 기자](http://hong927@donga.com)

## 이대호, 2타점 2루타 작렬...시즌 타율 0.310

오릭스 이대호가 1일 세이부돔에서 열린 세이부와의 원정 경기에서 4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10을 유지했다. 이대호는 1-0으로 앞선 1회 무사 2-3루서 상대선발 니시구치 구미야를 상대로 좌월 2타점 2루타를 때려냈다. 2회 3루수 직선타, 5회 우익수플라이로 물러났지만 8회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끌러나갔고 대주자 야마모토 가즈나오로 교체됐다. 오릭스는 7-1로 이겼다.

## 두산, 9개 구단 중 가장 먼저 100만 관중 돌파

두산은 1일 잠실 삼성전에서 올 시즌 9개 구단 중 가장 먼저 1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5년 연속 100만 관중을 기록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5년 연속 100만 관중을 돌파는 롯데에 이어 두 번째다.

## 넥센-한화전서 조지훈 빈볼 시비 벤치 클리어링

1일 대전 넥센-한화전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다. 8회초에 한화 투수 조지훈이 넥센 선두타자 허도환의 상체로 바짝 붙는 몸쪽 공을 던졌고, 가까스로 몸을 돌려 등에 공을 맞은 허도환이 화가 난 듯 마운드 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훈이 모자를 벗어 사과하면서 일단락됐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경기가 속개됐다.

## 류현진 '투수들의 무덤'서 14승 도전

5일 큐어스필드 첫 등판...상대 선발은 데라로사 1승 추가면 다저스 신인 한 시즌 최다승 역대 2위

시즌 13승으로 LA 다저스 역사상 신인 한 시즌 최다승 3위에 오른 류현진(26)의 다음 무대는 '투수들의 무덤' 큐어스필드다.

류현진은 5일 오전 9시40분(한국시간) 큐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해발 1600m 고지대에 위치한 큐어스필드는 공기저항이 적어 타구의 비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수들에 매우 불리한 구장이다.

류현진의 큐어스필드 등판은 처음이다. 6월 3일 큐어스필드에서 벌어진 콜로라도전에 선발로 나설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5월 29일 LA 에인절스전에서 타구에 발을 맞아

보호 차원에서 콜로라도 원정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다.

콜로라도를 상대로는 시즌 2번째 등판이다. 5월 1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 6이닝 3안타(홈런 1개 포함) 2볼넷 2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챙기면서 12월삼진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도 수립했다.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가 호르헤 데라로사로 예고됐다는 점도 류현진에게는 호재다. 류현진은 5월 1일 데라로사와의 선발 맞대결에서 판정승했다. 당시 데라로사는 4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11개를 맞고 6실점에 패전투수

가 됐다. 류현진은 타석에서 데라로사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첫 타점을 뽑아내기도 했다.

시즌 방어율 3.02로 2점대 복귀를 눈앞에 둔 류현진은 1승을 추가하면 일본인 이시이가치사가 보유한 다저스 신인 한 시즌 최다승 역대 2위(14승)와 동률을 이룬다. 류현진이 '투수들의 무덤'에서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 다저스는 7~9일 신시내티 원정에 나서지만, 류현진이 5일 콜로라도전에 등판함에 따라 추신수(신시내티)와의 페넌트레이스 맞대결은 더 이상 없게 됐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시즌 14승에 도전하는 LA 다저스 류현진의 다음 선발등판이 5일 큐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전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선발 맞대결에 예고된 호르헤 데라로사. [에들렌다 | AP/시스](http://AP/시스)